



## 월성 1호기 준공과 대통령의 초청 거절(?)

노윤래

원자력 칼럼니스트 ·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1982년 3월 초 필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초대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현지로 부임했다. 1977년 6월에 착공된 월성 1호기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발전소가 발족되었기 때문이다.

중수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973년 10월 말 캐나다에 파견된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필자가 새로 조직된 발전소의 시운전을 맡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엄중한 책임감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 월성원전 초대 소장으로 준공까지 14개월의 고초

부임한 날부터 발전소가 준공되기까지의 14개월은 필자가 28년 봉직한 직장(한전) 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인 기간으로 기억된다.

계속되는 온태 기능 시험(hot functional test)에 밤을 새우기도 했고, 초임계(initial criticality)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음 졸이며 중앙제어실을 떠나지 못했던 일, 원자로 출력이 15% 이상에서는 제어시스템이 자동 운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나 영출력인 임계에서 정격 출력의 15%까지는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모의제어반(simulator)이 아닌 실제 원자로를 처음으로 조정하는 운전원의 미숙함으로 인해 원자로 정지(reactor trip)가 반복되어 이를 바라보



월성 1호기 건설 장면

는 초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운전 기간 중 가장 당혹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원자로 출력이 85%에 이르자 증기의 수분이 무려 20%로 치솟은 것이다. 원전의 증기조건은 수분을 0.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분이 20%라는 것은 증기가 아니라 물을 터빈에 쏟아 붓는 격이었다. 설계 변경으로 증기발생기의 수리 작업이 결정되었으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준공식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은 준공식 이후로 미루어졌다.

결국 100% 정격 출력에서 100시간 연속 운전에 따른 성능 시험(performance test)을 미룬 상태에서 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자를 화나게 한 것은 본사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발전소 조직은 건설 시운전반을 그대로 옮겨왔을 뿐이고 시운전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총무부서가 없었다. 건설사무소의 지원을 받

으라는 본사의 지시였다.

건설 총무가 발전소로 이관된 시운전 업무 지원을 충실히 하리라고 생각했을까? 이는 야전군에게 병참 지원을 담당할 군수참모를 두지 않고 전투에 임하라는 총사령부의 지시와 다르지 않은 어이없는 처사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험한 작업을 돌파하기를 14개월 만에 발전소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 대통령이 참석한 준공식

준공식은 1983년 4월 22일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월성 원전의 준공과 함께 국내 총발전 설비 용량이 1000만kW를 돌파하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필자는 대통령 일행을 맞아 중앙 제어실에서 발전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본부 건물에



월성 1호기 준공식

마련된 다과회장으로 안내했다. 다과회장에 모인 내의 인사에게 원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노고를 치하한 대통령은 임시로 마련된 귀빈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필자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전두환)은 필자에게 소장은 발전소의 운영뿐 아니라 보안(security)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서 유사시에는 군(軍)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무장간첩 침투 사건에서 신속하게 예비군을 비상 소집한 것은 잘된 일이었다고 칭찬(?)했다. 군 출신의 대통령이라 보안에 남다른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 대통령 초청 만찬 대신 직원들과 회식

준공식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는 경주 시내 모처에서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와 경주 지역의

기관장을 만찬에 초청했다. 필자도 초청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부소장을 포함한 10여명의 부장들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즐겁게 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자는 물론 부하 간부들에게도 유익하리라고 믿었을 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포 횃집에서 싱싱한 광어를 만끽하고 있을 때 다급한 당직 근무자의 전화벨이 울렸다. 대통령이 필자를 찾는다며 즉시 만찬장으로 가라는 내용이었다. 시간을 보니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더구나 감포에서 경주까지는 빨리 달려가도 1시간 정도가 예상되어 단념했다.

다음날 아침 원자력담당 이사(김선창)가 필자에게 급히 본사에 와서 사장(박정기)에게 사죄하라는 지시를 했다. 어찌자고 대통령의 초청을 묵살했냐는 질책이었다.

상경하는 차에 몸을 맡기고 필자는 온갖 상념에 머리

가 뒤숭숭했다. 대통령이 누구인가? 10. 26사건의 주변들을 차단하고 12. 12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5. 16 광주항쟁을 무참하게 짓밟고 청와대의 주인이 된 인물이 아닌가? 그런 막강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개월 전에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분의 심기를 건드린 불경죄를 사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 김 이사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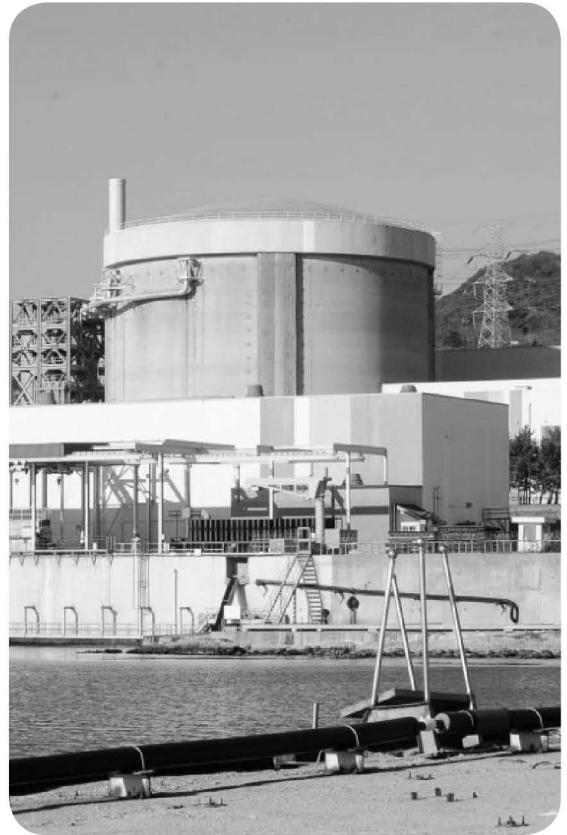
###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불경죄(?)

본사에 도착 즉시 필자는 사장실로 갔다. 급작스런 출현에 의아한 표정을 띤 사장에게 필자는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불경죄로 사장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사죄하러 왔다고 했다. 사장은 원전처럼 중요한 산업 시설에 대해 보안 업무에도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 소장을 찾으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필자는 다소 안심이 되었으나 혹시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것으로 비쳤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실책이며 이로 인해 사장의 입장이 어렵다면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려도 좋으냐고 양해를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필자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며 또한 정치적 야망이 높거나 정치적 지향성의 장성급 군인이 아닌 일개 엔지니어로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마치 달갈로 바위를 치는 행동과 다름 없는 어리석은 일로 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며 기왕



월성 1호기

에 상경했으니 2~3일 쉬고 월성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사장실에서 나와 직장으로 직행했다. 준공식은 끝났지만 발전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초청을 묵살한 사람이 필자 이외에 또 있을까? 🤔